

##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관련변인들

-성별, 연령, 신체성숙 수준, 주관적 연령, 애착을 중심으로-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관련된 변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2학년 남녀 학생들(673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신체성숙 수준, 주관적 연령 및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어머니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어머니 갈등척도, 신체성숙척도, 주관적 연령척도, 애착척도가 사용되었고 변량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되었다. 연구결과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신체성숙 수준과 주관적 연령은 오로지 남학생들과 관련된 문제로서 낮은 수준의 신체성숙과 주관적 연령을 지니고 있는 남학생들이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였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해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이 낮은 애착의 소유자들보다 어머니와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하였고, 연구된 모든 변인들 중에서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인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었으며 그 다음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었다. 흥미롭게도 남녀 청소년들이 어머니에게 동등하게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을 때에도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여 차이를 보였다.

주요어 : 청소년-어머니 갈등, 신체성숙, 주관적 연령, 애착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의 청소년이든 잡다한 일상적인 일이나 가족관계 문제, 학교문제, 의복문제, 머리모양 문제와 같은 비교적 사소한 문제로 부모와 갈등하고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임을 확인하려고 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

서 일부의 청소년들은 부모와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부모 권위에 대한 반항과 학업실패, 물질사용, 가출, 자살 충동 혹은 우울증을 보이기도 한다(Conger, Conger, & Scaramella, 1997; Mason, Cauce, Gonzales, & Hiraga,

이 논문은 2004년도 충남대학교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 장휘숙, E-mail: hsjang@cnu.ac.kr

1996; Shigel & Barber, 1993). 따라서 전세계의 모든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가 있는 시기를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로 인식한다. 특히 어머니들은 아버지들보다 일상생활에서 자녀와 더 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에(이주옥, 1993; Laursen & Collins, 1994; Collins & Russell, 1991), 자녀의 청년기 동안 더 큰 심리적 불만족감과 불행감으로 고통을 겪는다. 그에 따라 이 분야의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양자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부모와 청소년 자녀 사이의 갈등과 관련된 변인들 중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부모역할 행동(황영은, 도현심, 2004; Ruter & Conger, 1995),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방식(김수연, 정문자, 1997; 노성향, 1994; Montemayor, 1982) 및 청소년들의 성격 특성(Barber, 1994) 등은 양자간의 갈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일관성있게 확인되고 있다. 즉 유연하지 못하고 비판적이며 강압적인 부모와 청소년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의 과잉기대를 포함하는 부정적, 강압적 부모역할이 양자간의 갈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지적 의사소통이나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 방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가정에서 청소년-어머니간에 갈등이 많으며 청소년이 낮은 자아통제력과 낮은 탄력성을 지니고 있거나 높은 공격성을 지니고 있을 때 그리고 아동기에 이미 문제행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때 어머니와 더 큰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장휘숙, 2004a,b).

그러나 청소년의 성별이나 연령과 관련된

연구나 신체적 성숙상태를 연구한 결과들은 다소 불일치하거나 불충분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그 예로서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녀의 성별에 관심을 갖는 연구들 중에는 모자관계가 모녀관계보다 더 갈등적이라고 보고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이주옥, 1993; Smetana, Yau & Hanson, 1991) 모녀관계가 모자관계보다 더 갈등적이라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Montemayor, 1982). 또한 모자간이나 모녀간의 갈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는 연구(김수연, 정문자, 1997)도 있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와 어머니와 딸의 관계 중 어느 관계가 더 갈등적인지 분명하지 않다. 청소년의 성별과 함께 연령 또한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어머니 갈등은 부모에 대한 의존과 독립의 양상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장휘숙, 2004b; Fuligni, 1998) 부모에 대한 의존이 높을 때는 갈등이 적고 부모에 대한 독립이 증가하면 갈등도 증가한다. 그에 따라 Silverberg와 Steinberg(1990)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증가하는 청년초기와 청년중기(중·고등학교 시기) 동안 큰 갈등이 나타나고 이후 부모와의 갈등은 감소한다고 제안하였으나 청년초기와 중기 중 어느 시기에 청소년들이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 상태와 청소년-어머니 갈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정경아(1993), Galambos와 Tilton-Weaver(2000), Freedman-Doan, Arbretton, Harold 및 Eccles(1993), 그리고 Steinberg(1988)는 신체적 성숙이 이루어질수록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수연과 정문자(1997)

및 Savin-Williams와 Small(1986)은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 수준과 부모와의 갈등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도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만 조속할 때 부모의 제한과 통제가 증가하므로 부모와의 갈등이 커진다는 연구(Montepare, Rierdan, Koff & Stubbs, 1989)도 있고 만숙한 남자 청소년과 조속한 여자 청소년들이 부모와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Hill, Holmbeck, Marlow, Green & Lynch, 1985)도 있는가 하면 만숙한 남자 청소년만이 부모와 갈등을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Steinberg, 1987)도 있어 확인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변인들외에도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주관적 연령(subjective age)을 가정할 수 있다. 주관적 연령이란 청소년들이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이 성숙하다거나 어리다고 지각하는 그들의 주관적 느낌으로(Galambos, Kolaric, Sears, & Maggs, 1999)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더 어리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높은 주관적 연령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실제 나이보다 자신을 더 어리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낮은 주관적 연령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흥미롭게도 성인이나 노인들 중에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더 젊게 지각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윤유경, 2000; Hubley & Hultsch, 1994), 지금까지 주관적 연령은 성인이나 노인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Galambos 등(1999)과 그들의 후속된 연구들(Galambos & Tilton-Weaver, 2000)은 높은 주관적 연령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이 문제행동(물질사용, 이성친구, 폭력행동 등)에

더 많이 가담하고 심리사회적 성숙 수준도 낮다고 보고함으로써 주관적 연령은 청년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주관적 연령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청소년-어머니 갈등과도 관련되어 있어 문제행동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Conger, Conger, & Scaramella, 1997; Mason, Cauce, Gonzales, & Hiraga, 1996; Shagel & Barber, 1993). 다시 말하면 청소년-어머니 갈등은 문제행동과 관련되어 있고 문제행동은 주관적 연령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어머니 갈등은 주관적 연령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관련된 또 다른 변인으로 애착을 가정할 수 있다. 장휘숙(2002)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분리-개별화를 이루고 높은 수준의 애착과 높은 수준의 분리-개별화를 이룬 대학생들이 가장 적응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들의 어머니와의 갈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부모와 갈등하므로 부모에 대한 높은 애착은 적절하게 낮은 정도의 갈등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은 청소년들은 부모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거나 갈등해결의 대안으로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애착간의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불일치한 결과를 보이는 청소년의 성별과 신체적 성숙의 영향을 검토하고 청년초기인 중학교 시기와 중기인 고등학교 시기 중 어느 시기에 청소년-어머니간의 갈등이 더 심각한지 그리고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된 주관적 연령과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규명하려고 한다. 청소년과 어머니의 갈등은 청소년과 아버지의 관계나 친구의 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버지나 친구에 대한 애착과의 관계도 함께 고찰한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성별과 연령에 따라 청소년-어머니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신체성숙 수준에 따라 청소년-어머니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주관적 연령에 따라 청소년-어머니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착에 따라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차이가 있는가?

## 방 법

### 연구대상자

D시에 있는 2개의 남자 중학교와 2개의 여자 중학교 2학년 14개 학급과 2개의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와 2개의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의 2학년 12개 학급이 표집되었다. 불성실한 응답을 하거나 응답을 누락한 학생들을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자는 전체 673명이었다. 이 중 남자 중학생은 167명, 여자 중학생 187명, 남자 고등학생 152명, 여자 고등학생 167명이었다. 이 학생들의 평균연령은 남자 중학생 13.28세( $SD=.451$ ), 여자 중학생 13.15세( $SD=1.052$ ), 남자 고등학생 16.40세( $SD=.492$ ) 그리고 여자 고등학생 16.35세( $SD=.479$ )였다. 질문지는 2004년 4월 초에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담임교사에 의해 실시되었고 실시시간은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 척도

### 1. 청소년-어머니 갈등 척도

청소년-어머니간의 갈등척도는 Printz, Foster, Kent 및 O'Leary(1979)의 문제항목 조사지(Issues Checklist: IC)와 그것을 기초로 제작된 김수연과 정문자(1997) 및 정경아(1993)의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Printz 등의 조사지는 물론 김수연과 정문자 및 정경아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모두 오래전에 제작된 척도들이어서 최근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상황과 맞지 않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 중 최근 상황에 적합한 일부의 문항만을 사용하고 새로운 문항들을 첨가함으로써 전체 21개 문항이 제작되었다.

질문은 지난 한달 동안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생각하면서 응답하도록 하였고 응답은 '아주 조용함'에서 '아주 거침'까지 5점 척도 상에 반응하도록 구성되었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어머니와의 대화가 거칠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어머니와 갈등이 많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Cronbach  $\alpha$ 로 계산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703이었다.

## 2. 신체성숙 척도

신체성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Petersen, Crockett, Richards 및 Boxer(1988)가 제작한 사춘기 발달척도(Pubertal Development Scale: PDS)가 사용되었다. 남자 청소년용과 여자 청소년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척도는 각각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문항은 남녀 공통으로 남녀 청소년의 체모와 피부변화를 평가한다.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 나머지 2개의 문항은 남자 청소년들에게는 목소리 변화와 수영의 발달여부를 그리고 여자 청소년들에게는 가슴발육과 초경경험 여부를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리커트 타입의 질문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여자 청소년의 초경 여부만은 ‘예’나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예’로 응답하면 4점, ‘아니오’로 응답하면 1점으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신체성숙 수준이 높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Cronbach  $\alpha$ 로 계산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남자 청소년용 질문지는 .8072였고 여자 청소년용 질문지는 .7082였다.

## 3. 주관적 연령 척도

청소년들이 동일 연령의 동년배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나이가 많다고 지각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Montepare, Rierdan, Koff 및 Stubbs(1989)가 제작한 척도와 Galambos와 Tilton-Weaver(2000)의 척도 및 윤유경(2000)이 사용한 척도를 기초로 한국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9개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문항은 “나와 같은 나이의 또래들과 비교해볼 때 나는 \_\_\_\_\_ 느낀다”, “나는 옷을 고를 때, 주로

\_\_\_\_\_ 좋아한다” 등을 포함하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질문에 적합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되 5점 리커트 타입으로 구성되었다. 주관적 연령 점수는 9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전체 점수로 계산되며 높은 점수는 동일 연령의 동년배들보다 자신을 더 나이 많다고 지각하는, 소위 주관적 연령이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로 계산된 내적 일관성 계수는 .7035였다.

## 4. 애착척도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부모와 동년배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가 사용되었다. 원래의 IPPA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하지 않고 28개의 부모 문항과 25개의 동년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및 친구를 분리하여 각각 25문항씩 동일한 내용을 질문한 Paterson, Field 및 Pryor(1994)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3인의 애착인물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로 계산된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착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각각 .9187, .9245 그리고 .9098이었다.

## 결 과

### 1. 성별 및 연령과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관계

청소년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과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은 성별과 학년

표 1.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평균(괄호안은 표준편차)

성별	학년	N	평균(SD)
남	중	168	1.29(.586)
	고	152	1.22(.601)
	전체	320	1.26(.593)
여	중	186	1.20(.545)
	고	167	1.05(.513)
	전체	353	1.13(.535)
전체	중	354	1.24(.566)
	고	319	1.13(.562)
	전체	673	1.19(.567)

표 2.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에서의 차이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성별	2.835	1	2.835	9.007**
학년	2.068	1	2.068	6.569*
성별 * 학년	0.350	1	0.350	1.113
오차	210.600	669	0.315	
전체	215.839	672		

\* $p < .05$ , \*\* $p < .01$ , \*\*\* $p < .001$  이하 동일함

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표 2는 그것을 변량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2에 의하면, 청소년-어머니 갈등은 성별( $F_{(1,669)}=9.007, p < .01$ )과 학년( $F_{(1,669)}=6.569, p < .05$ )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성별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1에 기초하여 해석하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신체성숙 수준과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관계

청소년의 신체성숙 수준에 따라 청소년-어

표 3. 성별, 학년, 신체성숙 수준 및 주관적 연령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평균(괄호안은 표준편차)

성별	학년	신체성숙 수준	주관적 연령	
남	중	고	1.19(.551)	
		저	1.38(.607)	
		전체	1.29(.586)	
	고	고	1.18(.646)	
		저	1.26(.561)	
		전체	1.22(.601)	
	전체	고	1.19(.595)	
		저	1.32(.586)	
		전체	1.26(.593)	
여	중	고	1.18(.516)	
		저	1.22(.562)	
		전체	1.20(.545)	
	고	고	1.18(.531)	
		저	1.02(.506)	
		전체	1.05(.513)	
	전체	고	1.18(.518)	
		저	1.11(.541)	
		전체	1.13(.535)	
	전체	중	고	1.19(.535)
			저	1.28(.585)
			전체	1.24(.566)
		고	고	1.18(.612)
			저	1.11(.539)
			전체	1.13(.562)
		전체	고	1.18(.566)
			저	1.19(.568)
			전체	1.19(.567)

머니 갈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신체성숙 수준은 성별이나 학년과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체성숙 점수의 50%를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성별(남, 녀) x 학년(중, 고) x 신체성숙 수준(고, 저)을 독

표 4. 성별, 학년, 신체성숙 수준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에서의 차이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성별	1.496	1	1.496	4.779*
학년	0.945	1	0.945	3.019
신체성숙 수준	0.180	1	0.180	0.575
성별 * 학년	0.03735	1	0.03735	0.119
성별 * 신체성숙 수준	1.339	1	1.339	4.278*
학년 * 신체성숙 수준	0.805	1	0.805	2.570
성별 * 학년 * 신체성숙 수준	0.06285	1	0.06285	0.201
오차	208.187	665	0.313	
전체	215.839	672		

립변인으로 하여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성별, 학년, 신체성숙 수준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표 4는 그것을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표 3에는 성별과 학년 및 주관적 연령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평균과 표준편차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변량분석 결과, 성별과 신체성숙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F_{(1,665)}=4.278, p<.05$ )가 유의하여 그림 1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사후분석으로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성숙 수준이 낮은 남학생들이 높은 남학생들보다 어머니와의 갈등을 유의하게

(갈등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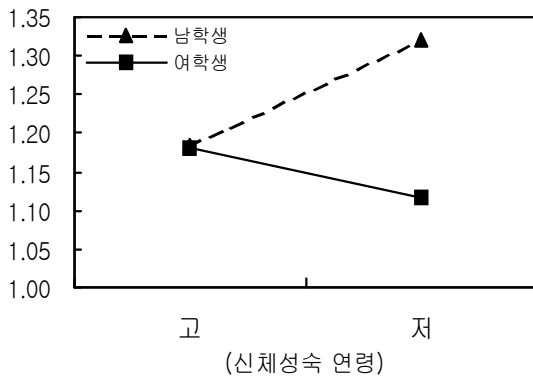


그림 1. 성별과 신체성숙 수준의 상호작용

더 많이 경험하였고( $F_{(1,318)}=4.209, p<.05$ ), 신체성숙 수준이 낮은 남학생들은 신체성숙 수준이 낮은 여학생들보다 어머니와의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F_{(1,426)}=14.403, p<.001$ ) 나타났으나 신체성숙 수준이 낮은 여학생과 높은 여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성숙 수준은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만 어머니와의 갈등과 관련된 변인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 3. 주관적 연령과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관계

주관적 연령에 따라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체성숙 수준과 동일하게 주관적 연령 점수의 50%를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성별(남, 녀) x 학년(중, 고) x 주관적 연령(고, 저)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성별, 학년, 주관적 연령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이고 표 5는 그것을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주관적 연령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별과 주관적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고( $F_{(1,665)}=3.893, p<.05$ ), 그림 2와 같

표 5. 성별, 학년, 주관적 연령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에서의 차이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성별	1.976	1	1.976	6.299*
학년	1.575	1	1.575	5.023*
주관적 연령	0.387	1	0.387	1.234
성별 * 학년	0.333	1	0.333	1.061
성별 * 주관적 연령	1.190	1	1.190	3.893*
학년 * 주관적 연령	0.484	1	0.484	1.545
성별 * 학년 * 주관적 연령	0.00004254	1	0.00004254	0.000
오차	208.571	665	0.314	
전체	215.839	672		

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사후분석으로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연령이 낮은 남학생들이 주관적 연령이 높은 남학생들( $F_{(1,318)}=4.219, p<.05$ )보다 어머니와의 갈등을 유의하게 더 많이 경험하였고, 주관적 연령이 낮은 남학생들은 주관적 연령이 높은 여학생( $F_{(1,341)}=6.186, p<.05$ )은 물론 낮은 여학생들( $F_{(1,390)}=13.937, p<.001$ )보다 어머니와의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성숙 수준에서와 동일하게 주관적 연령이 낮은 여학생이나 높은 여학생간에는 어머니와의 갈등에서 유의한

(갈등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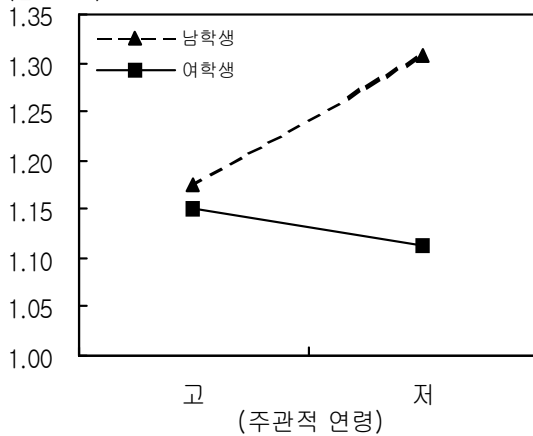


그림 2. 성별과 주관적 연령의 상호작용

차이가 없어 주관적 연령은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만 어머니와의 갈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함께 신체성숙 수준에서는 성별( $F_{(1,665)}=4.779, p<.05$ )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주관적 연령에서는 성별( $F_{(1,665)}=6.299, p<.05$ )과 학년( $F_{(1,665)}=5.023, p<.05$ )의 주효과가 유의하여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는 연구문제 1의 결과를 확인시켜 주었다.

#### 4.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관계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3인의 애착인물에 대한 애착점수의 50%를 기준으로 애착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청소년-어머니 갈등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착도 성별이나 연령과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애착인물에 대해 성별(남, 녀) x 학년(중, 고) x 애착(고, 저)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성별, 학년,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평균(괄호안은 표준편차)

성별	학년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버지에 대한 애착	친구에 대한 애착	
남	중	고	1.11(.599)	1.11(.610)	1.20(.604)	
		저	1.45(.526)	1.45(.514)	1.38(.558)	
		전체	1.29(.586)	1.29(.586)	1.29(.586)	
	고	고	1.04(.498)	1.06(.482)	1.16(.672)	
		저	1.39(.641)	1.38(.660)	1.28(.521)	
		전체	1.22(.601)	1.22(.601)	1.22(.601)	
	전체	고	1.08(.553)	1.09(.552)	1.18(.635)	
		저	1.43(.582)	1.42(.587)	1.33(.541)	
		전체	1.26(.593)	1.26(.593)	1.26(.593)	
	여	중	고	0.95(.418)	0.99(.483)	1.16(.550)
			저	1.43(.550)	1.39(.532)	1.24(.541)
			전체	1.20(.545)	1.20(.545)	1.20(.545)
고		고	0.75(.406)	0.89(.451)	0.94(.496)	
		저	1.32(.446)	1.20(.523)	1.16(.508)	
		전체	1.05(.513)	1.05(.513)	1.05(.513)	
전체		고	0.86(.423)	0.94(.469)	1.05(.536)	
		저	1.38(.506)	1.30(.535)	1.20(.526)	
		전체	1.13(.535)	1.13(.535)	1.13(.535)	
전체		중	고	1.03(.518)	1.05(.550)	1.18(.575)
			저	1.44(.537)	1.42(.524)	1.31(.552)
			전체	1.24(.566)	1.24(.566)	1.24(.566)
	고	고	0.89(.473)	0.97(.472)	1.04(.595)	
		저	1.36(.547)	1.29(.598)	1.22(.517)	
		전체	1.13(.562)	1.13(.562)	1.13(.562)	
	전체	고	0.96(.501)	1.01(.515)	1.11(.588)	
		저	1.40(.543)	1.36(.562)	1.26(.536)	
		전체	1.19(.567)	1.19(.567)	1.19(.567)	

표 6은 성별과 연령 및 3인의 애착인물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며 표 7은 성별, 학년,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에서의 차이를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표 7에 의하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주효과( $F_{(1,665)}=118.944, p<.001$ )와 성별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고

( $F_{(1,665)}=4.830, p<.05$ ), 그림 3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사후분석으로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은 남학생들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은 남학생들( $F_{(1,318)}=29.824, p<.001$ )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은 여학생들( $F_{(1,338)}=27.323, p<.001$ )보다 어머니와의 갈등을 유의하게 더 적게 경험하는

표 7. 성별, 학년,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에서의 차이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성별	3.113	1	3.113	11.700***
학년	1.997	1	1.997	7.506**
어머니에 대한 애착	31.647	1	31.647	118.944***
성별 * 학년	0.314	1	0.314	1.179
성별 * 어머니에 대한 애착	1.285	1	1.285	4.830*
학년 * 어머니에 대한 애착	0.114	1	0.114	0.428
성별 * 학년 * 어머니에 대한 애착	0.06765	1	0.06765	0.254
오차	176.934	665	.266	
전체	215.839	672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은 여학생들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은 남학생( $F_{(1,331)}=104.484, p<.001$ )과 여학생( $F_{(1,351)}=109.723, p<.001$ )은 물론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은 남학생들( $F_{(1,323)}=16.657, p<.001$ )보다도 어머니와의 갈등을 유의하게 더 적게 경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남녀 청소년들 모두가 어머니에 대해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을 때에도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이와함께 성별( $F_{(1,665)}=11.700, p<.001$ )과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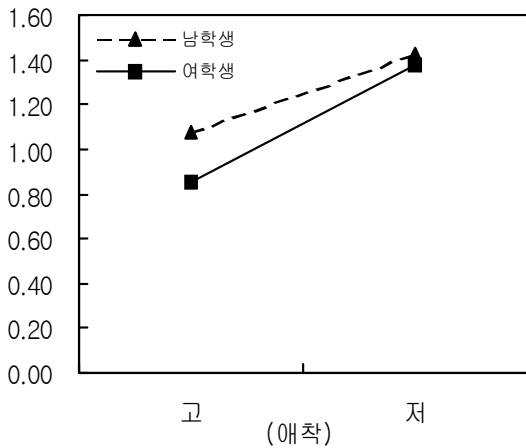


그림 3. 성별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상호작용

년( $F_{(1,665)}=7.506, p<.01$ )의 유의한 주효과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표 8은 성별과 학년 및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3원 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성별( $F_{(1,665)}=10.312, p<.001$ )과 학년( $F_{(1,665)}=6.487, p<.05$ ) 및 아버지에 대한 애착( $F_{(1,665)}=69.513, p<.001$ )의 주효과가 유의하여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낮은 청소년들이 높은 청소년들보다 어머니와 더 많이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 효과는 어느 것도 유의하지 않았다.

친구에 대한 애착에서도 표 9에 제시된 바와같이 성별( $F_{(1,665)}=9.052, p<.001$ ), 학년( $F_{(1,665)}=6.684, p<.001$ ) 및 친구에 대한 애착( $F_{(1,665)}=12.259, p<.001$ )의 주효과만 유의하였고 상호작용 효과는 어느 것도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그리고 친구에 대한 애착이 낮은 학생들이 높은 학생들보다 어머니와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검증한 모든 변인들과 청소년-어

표 8. 성별, 학년,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에서의 차이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성별	2.950	1	2.950	10.312***
학년	1.856	1	1.856	6.487*
아버지에 대한 애착	19.886	1	19.886	69.513***
성별 * 학년	0.264	1	0.264	0.923
성별 * 아버지에 대한 애착	0.02469	1	0.02469	0.086
학년 * 아버지에 대한 애착	0.08837	1	0.08837	0.309
성별 * 학년 * 아버지에 대한 애착	0.04050	1	0.04050	0.142
오차	190.243	665	.286	
전체	215.839	672		

머니 갈등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별, 학년, 주관적 연령, 신체성숙 수준,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버지에 대한 애착 및 친구에 대한 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전체 갈등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성별( $\beta = -.086, p < .05$ ), 학년( $\beta = -.083, p < .05$ ), 신체성숙 수준( $\beta = -.083, p < .05$ ), 주관적 연령( $\beta = -.073, p < .05$ ), 어머니에 대한 애착( $\beta = -.387, p < .001$ ), 아버지에 대한 애착( $\beta = -.140, p < .001$ )이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들로 확인될 수 있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

한 변인이었고 그 다음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었다.

## 논 의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2학년 남녀 청소년들(673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별, 연령, 신체성숙 수준, 주관적 연령 및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어머니 갈등척도, 신체성숙 척도, 주관적 연령척도, 및 애착척도가 사용되었다. 변량분석 결과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표 9. 성별, 학년, 친구에 대한 애착에 따른 청소년-어머니 갈등에서의 차이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성별	2.808	1	2.808	9.052**
학년	2.074	1	2.074	6.684**
친구에 대한 애착	3.803	1	3.803	12.259***
성별 * 학년	0.345	1	0.345	1.112
성별 * 친구에 대한 애착	0.0003733	1	0.0003733	0.001
학년 * 친구에 대한 애착	0.07439	1	0.07439	0.240
성별 * 학년 * 친구에 대한 애착	0.429	1	0.429	1.384
오차	206.322	665	0.310	
전체	215.839	672		

보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신체성숙 수준이 낮은 남학생들이 높은 남학생들보다 그리고 신체성숙 수준이 낮은 남학생들은 낮은 여학생들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였고, 신체성숙 수준이 낮은 여학생과 높은 여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신체성숙은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만 어머니와의 갈등과 관련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와함께 주관적 연령이 낮은 남학생들이 높은 남학생과 여학생은 물론 주관적 연령이 낮은 여학생들보다도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연령이 높은 여학생과 낮은 여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신체성숙 수준과 동일하게 주관적 연령은 남자 청소년들 사이에서만 어머니와의 갈등과 관련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애착의 관계에서는 3인의 애착인물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갈등이 적었으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은 남학생들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은 남학생과 여학생들보다 어머니와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하였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은 여학생들은 낮은 남학생과 여학생은 물론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은 남학생보다 어머니와의 갈등을 더 적게 경험함으로써, 남녀 학생들이 어머니에게 동등한 정도의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을 때에도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었으며 그 외 성별, 학

년, 신체성숙 수준 및 주관적 연령이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모자관계가 모녀관계보다 더 갈등적이라는 이주옥(1993)의 연구나 Smetana, Yau 및 Hanson(199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주옥(1993)은 어머니들에게 질문하여도 아들과의 갈등이 딸과의 갈등보다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된다고 보고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남아선호 사상으로 어머니가 딸보다 아들에게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기 때문에 갈등도 많아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보다 행동의 절제나 통제가 부족하고 정리정돈 문제나 청결 문제 혹은 용돈사용 문제 등에서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자관계가 모녀관계보다 더 갈등적이라는 이 연구의 결과는 타당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횡단연구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 연구에서 나타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는 결과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증가하는 청년초기와 중기(중·고등학교 시기) 동안 부모-자녀간에 갈등이 증가한다는 Silverberg와 Steinberg (1990)의 연구결과를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청소년-어머니 갈등은 청년초기(중학교 시기)에 절정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신체적 성숙수준이 낮은 남학생들이 높은 남학생들보다 어머니와 더 큰 갈등을 경험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Steinberg (1987)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였지만, 신체적 성

숙이 이루어질수록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정경아, 1993; Galambos & Tilton-Weaver, 2000; Freedman-Doan 등, 1993)이나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만 조속할 때 부모와의 갈등이 커진다는 Montepare 등 (1989)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해 볼 때 최근에 와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과거보다 더 일찍 사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신체성장이 늦은 청소년들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2년 정도 늦게 사춘기에 진입하는 남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신체성장이 늦은 청소년들은 주위의 동년배들보다 지나치게 늦은 자신의 성장으로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어머니와도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체적 성숙수준과 어머니와의 갈등의 관련성은 남자 청소년들에서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차이는 결과의 또 다른 원인으로 신체성숙 척도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사춘기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 PDS를 사용하였으나 연구자들마다 PDS를 조금씩 변형하여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Galambos와 Tilton-Weaver(2000) 같은 연구자들은 PDS외에도 얼굴성숙 척도를 함께 사용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PDS외에도,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숙상태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직접 질문하거나(Silbereisen & Kracke, 1993) 골격연령을 측정하는 방법(Peskin, 1967) 혹은 직접적으로 호르몬 수준을 측정하는 생리적 측정방법(Susman 등, 1985) 등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도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측정도구의 차이에 기인한 문제도 규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더 어른스럽다고 지각하는 소위 높은 주관적 연령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더 많이 일으키고 심리사회적 성숙수준도 낮다는 Galambos와 Tilton-Weaver(2000)의 연구에 기초할 때, 주관적 연령이 높은 청소년들이 어머니와 갈등도 더 많이 경험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주관적 연령이 낮은 남학생들이 어머니와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주관적 연령은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만 어머니와의 갈등과 관련된 개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로 해석될 수 있기도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는 Galambos와 Tilton-Weaver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주관적 연령이 상중하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중간점수(3점) 주위에 분포하고 있어 상하집단만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어머니 갈등과의 관계가 연구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구대상 청소년들은 서구의 청소년들만큼 주관적 연령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부분 평균치 주위에 모여 있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주관적 연령이라는 개념이 미약하거나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주관적 연령은 다른 변인들과 비교하여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였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실제 연령(생활연령)과 비교하여 주관적 연령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혹은 문제행동이나 심리사회

적 성숙수준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편 애착과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관계에서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어머니와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함으로써 애착이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또한 남녀 청소년 모두가 어머니에 대해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을 때에도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여, 이 연구는 물론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대로 청소년-어머니 갈등은 모녀관계에서보다 모자관계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성숙의 관계를 연구한 장휘숙(2002)의 연구와 관련지어 해석해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애착은 어머니와의 갈등을 적게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부모로부터 높은 수준의 분리-개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기 동안 더 적응적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구에 대한 애착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어머니 갈등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친구에 대한 애착보다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모든 자료들이 자기보고 질문지를 사용하여 수집되었으므로, 공유된 방법 변량(shared method variance)에 의해 변인들 사이의 관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질문지 방법외에도 면접이나 관찰과 같은 다른

방법들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지닌다. 학교를 자퇴한 청소년이나 문제청소년들이 포함될 수 있다면 청소년-어머니 갈등의 보다 정확한 양상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주관적 연령의 지각에서 나타난 서구와의 차이점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이 연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동시에 표집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횡단연구였으나 미래에는 사춘기 진입 이전부터 시작하여 청년기가 끝날 때까지 청소년-어머니 갈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연구할 수 있도록 종단연구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청소년-형제자매의 갈등이 함께 연구됨으로써 가족체계내의 갈등 양상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규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관련된 기존의 개념들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관적 연령 및 애착과 갈등과의 관계를 새롭게 고찰함으로써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어머니 갈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물론 주관적 연령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각에서 문화적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수연, 정문자(1997).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35(3), 181-192.

- 노성향(199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유경(2000). 주관적 연령지각과 관련요인에 관한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 19(1), 61-78.
- 이주옥(1993).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에 대한 질적 연구-갈등의 유형, 해석 및 그 해결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휘숙(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 장휘숙(2004a). 부모-자녀 갈등-부모와 청소년 자녀, 노부모와 성인자녀 및 고부간의 갈등. 2004 한국심리학회 대외심포지움 논문집.
- 장휘숙(2004b). 청년심리학 제 3판. 서울: 박영사.
- 정경아(1993). 사춘기 발달과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영은, 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2), 133-154.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Barber, B. K. (1994). Cultural, family, and personal contexts of parent-adolescent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375-386.
- Collins, W. A., & Russell, G. (1991). Mother-child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A development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11, 99-136.
- Conger, K. J., Conger, R. D., & Scaramella, L. V. (1997). Parents, siblings,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1), 113-138.
- Freedman-Doan, C. R., Arbretton, A. J. A., Harold, R. D., & Eccles, J. S. (1993). Looking forward to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3, 472-502.
- Fuligni, A. J. (1998). Authority, autonomy, and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cohesion: A study of adolescents from Mexican, Chinese, Filipino, and European background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4, No. 4, 782-792.
- Galambos, N. L., & Tilton-Weaver, L. C. (2000). Adolescents' psychosocial maturity, problem behavior, and subjective age: In search of adultoid.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Vol. 4, No. 4, 178-192.
- Galambos, N. L., Kolaric, G. C., Sears, H. A., & Maggs, J. (1999). Adolescents' subjective age: An indicator of perceived matur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9(3), 309-337.
- Hill, J. P., Holmbeck, G. N., Marlow, L., Green, T. M., & Lynch, M. E. (1985). Pubertal status and parent-child relations in families of seventh-grade boy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5, 31-44.
- Hubley, A. M., & Hultsch, D. F. (1994). The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rait variables to subjective age identity in older adults. *Research on Aging*, 16, 415-439.
- Laursen, B., & Collins, W. A. (1994). Interpersonal conflict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 197-209.
- Mason, C. A., Cauce, A. M., Gonzales, N., & Hiraga, Y. (1996). Neither too sweet nor too sour: Problem peers, maternal control, and problem behavior i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7, 2115-2130.
- Montemayor, R.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the amount of time adolescent spend alone and with parents and peers. *Child Development*, 53, 1512-1519.
- Montepare, J. M., Rierdan, J., Koff, E., & Stubbs,

- M. (1989). *The impact of biological events on females' subjective age identities*. Paper presented at the 8th Meeting of the Society for Menstrual Cycle Research, Salt Lake City, UT.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579-600.
- Peskin, H. (1967). Pubertal onset and ego function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2, 1-15.
- Petersen, A. C., Crockett, L., Richards, M., & Boxer, A. (1988). A self-report measure of pubertal status: Reliability, validity, and initial nor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 117-133.
- Printz, R. J., Foster, S., Kent, R. N., & O'Leary, K. D. (1979). Multivariate assessment of conflict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other-adolescent dyads.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2, 691-700.
- Ruter, M. A., & Conger, R. D. (1995). Antecedents of parent-adolescent disagree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435-448.
- Savin-Williams, R. C., & Small, S. A. (1986). The timing of puberty and its relationship to adolescent and parent perceptions of family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2(3), 342-347.
- Shagel, S. C., & Barber, B. K. (1993). Effects of family, marital, and parent-child conflict on adolescent self-derogat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64-974.
- Silbereisen, R. K., & Kracke, B. (1993). Variation in maturational timing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In S. Jackson & H. Rodriguez-Tome (Eds.), *Adolescence and its social world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ilverberg, S. B., & Steinberg, L. (1990). Psychological well-being of parents with early adolescent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4), 668-686.
- Smetana, J. G., Yau, J., & Hanson, S. (1991). Conflict resolution in families with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 189-206.
- Steinberg, L. (1987). Impact of puberty on family relations: Effects of pubertal status and pubertal tim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451-460.
- Steinberg, L. (1988). Reciprocal relation between parent-child distance and pubertal matu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22-128.
- Susman, E. J., Nottelmann, E. D., Inoff-Germain, G. E., Dorn, L. D., Cutler, G. B., Jr., Loriaux, D. L., & Chrousos, G. P. (1985). The relation of relative hormonal levels and physical development and social-emotional behavior i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245-264.

---

1차 원고 접수 : 2005. 1. 7  
수정 원고 접수 : 2005. 2. 7  
최종게재결정 : 2005. 2. 17



## Adolescent-Mother Conflicts and their Related Variables

Hwee 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 between several variables and adolescent-mother conflicts wi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male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had more conflicts with their mother than female and high school ones. Also the male students with low levels of physical maturity and subjective age, being related with only male students, had more conflicts with their mother than their counterparts. Furthermore the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attachment to mother, father and peer had less conflicts with their mother than ones with lower levels of attachment to three figures. Interestingly male students had more conflicts with their mother than female ones even when having high levels of attachment to their mother.

*Keywords: adolescent-mother conflict, physical maturity, subjective age, attachment*